

‘60만 서구’ 주민들의 뜨거운 함성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 가득 찼다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푸른음악회 ‘성료’
‘인구 60만 돌파’ 축하 이벤트 마련
에픽하이·다비치 등 대중가수 공연도

지난 31일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인천 서구 주민들의 함성과 환호가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 가득 찼다.

서구가 지난 31일 하나은행과 함께 개최한 ‘60만 서구와 하나은행이 함께하는 푸른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평일 저녁임에도 많은 6000여 명의 구민이 함께해 ‘인구 60만 돌파’를 축하하며 화려한 불거리를 즐겼다.

기념행사인 1부에서는 각 세대, 계층별 주민이 참여해 만든 축하 영상이 상영됐고, 이어 기념 이벤트로 60만 번째를 넘어 전입을 한 가족과 출생신고를 한 가족에게 강범석 구청장과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이 기념패를 전달했다.

기념 세리모니에서는 관람객과 함께 ‘60만 서구시대, 역사가 되는 2023년’ 피켓을 함께 들며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2부 행사에서는 청라에 본사 이전을 앞둔 하나은행과 함께 마련한 ‘푸른음악회’가 진행됐다. 에픽하이, 다비치, 나태주, 제니스 등



지난 31일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60만 서구와 하나은행이 함께하는 푸른음악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왼쪽 여섯번째), 강범석 서구청장(왼쪽 일곱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 제공

대중가수 공연으로 시원한 저녁 날씨와 함께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가 28년 전 구청장으로 일했던 서구는 당시보다 2배 이상 인구가 증가해 60만 명을 돌파했다”며 “대한민국 자치구 중 인구 2위, 면적 1위의 서구의 미래 발전 잠재력은 단연 최고”라고 말했다.

강 구청장은 “우리 서구가 인구 60만을 넘어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 객석을 매워주신

구민 여러분 덕분에 벅차고 설렌 순간”이라며 “서구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특별한 장점과 매력이 있다”며 “차진 덩치만큼 이를 위한 내실도 두루 갖춰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구는 전국에서는 자치구 중 2번째로 인구 60만 명을 넘었다. 4월 20일 기준 내국인 인구 60만15명으로 서구 인구는 같은 인천 내 자치구를 훌쩍 넘어섰고 전국 자치구 중 3월 기준 65만 8000 명의 서울 송파구 다음이다.

정민호 기자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0명…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아이들 위한 꿈 지원 사업 참여 밝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0명이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6일 연가입식에서 연합회 회원 10명이 모두 1000만 원을 약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눔리더는 나눔으로 희망을 밝히는 지역 사회 리더 캠페인이다.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김기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회원들이 인천 아동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작지

만 큰 결심을 했다”며 “짧은 시간 동안 10명의 참가자가 모여 단체 가입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명예회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나눔리더가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인천 아이들을 위한 꿈 지원 사업에 연합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훈 인천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상황이 누구보다 어려운 연합회 회원 분들이 아동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이 돼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지현 기자



지난달 26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가입식에서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명예회장(아랫줄 왼쪽 세 번째), 박용훈 인천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기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동구,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폐렴공원에 게이트볼장·족구장 준공

김찬진 구청장 “건강증진·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인천 동구가 폐렴공원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조성했다. 구는 지난 31일 폐렴공원에서 게이트볼장·족구장 준공식과 게이트볼 대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해 내빈과 게이트볼 동호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을 마친 뒤, 게이트볼장에서 ‘제28회 동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다.

앞서 구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국제강과 부지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폐렴공원 내 주차장 일부를 활용해 게이트볼장 1면(30m×19m)을 조성했으며, 기존 족구장 2면을 정식규격에 맞게 1면(22m×35m)으로 다시 만들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폐렴공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지역 주



지난 31일 오전 김찬진 동구청장이 ‘제28회 동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진행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구 제공

민이 많이 이용해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도로 침수 막는다’… 남동구, 빗물받이 4800곳 위치 표식

야간 식별 가능한 고휘도 반사필름

인천 남동구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 빗물받이 4800곳에 위치 표식<사진>을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위치 표식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빗물받이 위치 발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낙엽이나 쓰레기 등에 빗물받이가 막혀 침수가 발생하면 혼탁한 물에 가려지고 야간 식별도 불가능해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는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했고 최근 완료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빗물받이 위치 표식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표식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고휘도 반사필름으로 개선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올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로경계석 이상 잠기는 상습 침수구역에는 사각 스탠드형 표식판 및 꽃말을 설치했다. 그 외에는 원형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여러 침수 형태에 따라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위치 표식에는 ‘낙엽 쓰레기 우리 함께 치워요!’라는 문구를 넣어 구민들의 협조를 유도했다.

구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현 기자



인천지역 모범 중소기업인들이 ‘2023 인천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제공

‘인천경제인들의 축제’… 중소기업인대회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자·단체 시상

인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서로 축하하기 위한 축제의 장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1일 ‘2023년 인천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중소기업인대회’는 기술개발과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및 지원 우수 단체를 시상하는 축제의 장으로 매년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에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윤영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수상자 74명 및 단체·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수상자는 ▲철담 산업훈장(안두백 에이티아이㈜ 대표이사) ▲대통령표창(김영무 ㈜하온아텍 대표이사, 장석기 ㈜임신다이캐스팅 대표이사) ▲국무총리표창(㈜하이베로 임현청 대표이사 등 3명) ▲장관표창(고재영 ㈜우석엔프라 대표 등 29명) ▲조달청장표창(배영석 ㈜세고산업 대표이사)

▲중소기업중앙회표창(강종원 ㈜우진피앤티 대표이사 등 20명) ▲인천중소기업회장표창(최광은 ㈜광진실업 대표이사 등 12명) ▲감사처(유옥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등 6명) 등이다.

철담 산업훈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인천지역 중소기업유공자는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철담 산업훈장을 수상한 안두백 대표이사는 2세 경영인으로 2006년부터 에이티아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외국산 설비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검사 및 계측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산학협력체계 구축, 경영혁신을 통해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인들은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지난달 29일 인천 중구는 폭우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송월동 재개발구역 빈집에 펜스를 설치했다. 중구 제공

중구, 폭우로 무너진 송월동 재개발구역 빈집 안전조치

지난 29일 해체 완료… 펜스도 설치
올해 빈집 정비 사업… 7개 동 해체

인천 중구는 폭우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송월동 재개발구역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붕괴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10분 쯤 발생했다. 지난 주말 이틀간 내린 호우로 균열부가 약해지면서 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붕괴 부분 인근 토지에 주택이 없고, 통행인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는 사고 직후 박영길 부구청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중부소방서·중부경찰서 등과 협력해 사고지역을 통제했으며, 주변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또 2차 붕괴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에게 긴급 해체 명령을 내렸다. 지난 29일 오후 3시쯤 대상 건물 해

체를 완료하고, 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했다.

중구는 장마철 빈집 주위 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관리와 정비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5월 말까지 빈집 7개 동을 해체했고, 하반기 추가 사업을 통해 무허가 빈집 등 약 10개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는 건물 소유자가 정비 사업에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구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붕괴한 건물도 구가 지난 4월 소유주에게 관리·정비를 요구한 바 있다.

김정현 중구청장은 “중구는 장마철에 대비해 빈집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펜스 설치, 해체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와 조치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지속해서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市, 몽골 현저서 의료 관광객 유치 박차… 단독 설명회 성료

몽골 의료관광객 인천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단독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다시 찾는 행복’을 주제로 인천 의료관광 단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국제 의료관광 시장에서 해외 의료관광

객 유치 선점을 위해 17개의 의료기관을 포함한 인천 의료관광 공동마케팅 협력단 22개 기관 46명과 함께 몽골 현지를 직접 찾았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 434건, 유치계약 35건, 주요 국립병원과 민간병원, 국영기업과 의료관광 에이전시들과의 업무협약 10건 체결의 성과를 거뒀다.

유정희 기자